

---

#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2019. 05.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조사결과 요약

- 폐업 전 영업 영속 년도는 '1년 이상- 3년 미만' 응답 비율이 30.9%로 가장 높았고, 폐업 선택 사유로는 '과다경쟁,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 부진'(60.9%) > '적성, 건강, 가족돌봄, 워라밸 등 개인적 이유(16.8%) >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견'(4.6%) > '임대료, 건물주 횡포 등 사업장 임대 관련 이슈'(4.0%) > '인건비 부담'(3.2%) 등의 순임
- 폐업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0.7%) > '권리금 회수 어려움'(26.9%) > '매수자 없음'(23.8%) > '복잡한 폐업 절차(신고 등)'(7.2%), > '가맹점 위약금 등 부담'(4.4%) > '기타'(2.8%) 순임
- 폐업 이후 생활로는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중임'(31.3%) >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함'(28.3%) > '계획 없음'(16.4%) > '휴식 중이며,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음'(7.8%) > '휴식 중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7.6%) > '업종을 변경하여 재창업함'(7.0%) > '기타'(1.6%) 순임
  - 재창업했거나 계획 중인 업종으로는 '도·소매업'(32.4%) > '기타 서비스업'(27.0%) >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16.2%) > '제조업'(10.8%) > '숙박업'(1.4%) > '기타'(12.2%) 순임
- 정부제공 지원책 활용률은 1.6%로 조사됨
  - 정부제공 지원책별로 활용률을 보면 '재도전특별자금'(8.8%) > '소상공인 e러닝', '재창업패키지'(2.4%) > '신사업창업사관학교'(2.0%) > '희망리턴패키지'(1.4%) 순임
  - 정부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72.7%) > '지원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음'(9.9%) > '신청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움'(8.6%) > '지원책은 필요없음'(5.0%) > 기타(3.8%) 순임
- 정부제공 지원책에 대한 만족 비율은 48.3%로 나타났으며, 활용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 정도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66.7%) > '신청 절차나 요구 서류가 복잡해 활용에 애로가 있었음'(20.0%) > '지원하는 내용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름'(3.3%) > '기타'(10.0%)순임



<b>제1장. 조사 개요</b> .....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	2
2. 조사 개요 .....	2
3. 조사 내용 .....	2
4. 응답자 특성 .....	3
<b>제2장. 조사 결과</b> .....	4
1. 폐업 전 영업 영속기간 .....	5
2. 폐업 선택 사유 .....	6
3. 폐업 시 가장 어려웠던 점 .....	7
4. 폐업 이후 생활 .....	8
5. 정부제공 지원책 활용 경험 .....	9
1) 희망리턴패키지 이용 경험 .....	10
2) 재창업패키지 이용 경험 .....	11
3) 재도전특별자금 이용 경험 .....	12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용 경험 .....	13
5) 소상공인 e러닝 이용 경험 .....	14
6. 활용 지원책 만족도 .....	15
1) 지원책 활용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	16
7. 지원책 활용하지 않은 이유 .....	17
8. 재창업을 준비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	18
9. 취업을 준비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	19
10. 기타 의견 .....	20

I

# 조사 개요



## 1 | 조사 배경 및 목적

-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폐업 자영업자 수가 10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폐업만큼 회전문 창업이 이루어져 실질 폐업률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 이에 본회는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현황을 조사하여 정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 정책 건의와 입법 대응에 활용하고자 함

## 2 | 조사 개요

조사 대상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1명
조사 방법	온라인조사와 이메일 FAX조사 병행
조사 기간	2019. 4. 25 ~ 2019. 5. 2 (약 1주일)
조사 기관	(주) 메트릭스코퍼레이션

## 3 | 조사 내용

### Part 1. 폐업 후 실태

- 폐업 전 영업 영속 기간
- 폐업 선택 사유
- 폐업 시 가장 어려웠던 점
- 폐업 이후 생활
- 재창업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업종

### Part 2. 정부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의견

-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 패키지/재도전특별자금/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 e러닝 활용 경험
- 활용 지원책 만족도 및 이유

Part 3. 기타 의견

- 재창업/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이나 제도 개선책
- 추가적인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및 정부에 바라는 점

**4** |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중(%)
전체		(501)	100.0
성별	남성	(277)	55.3
	여성	(224)	44.7
연령	30대 이하	(96)	19.2
	40대	(215)	42.9
	50대 이상	(190)	37.9
거주지	수도권	(299)	59.7
	비수도권	(202)	40.3
폐업 전 업종	제조업	(52)	10.4
	도·소매업	(114)	22.8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	(134)	26.7
	기타 서비스업	(201)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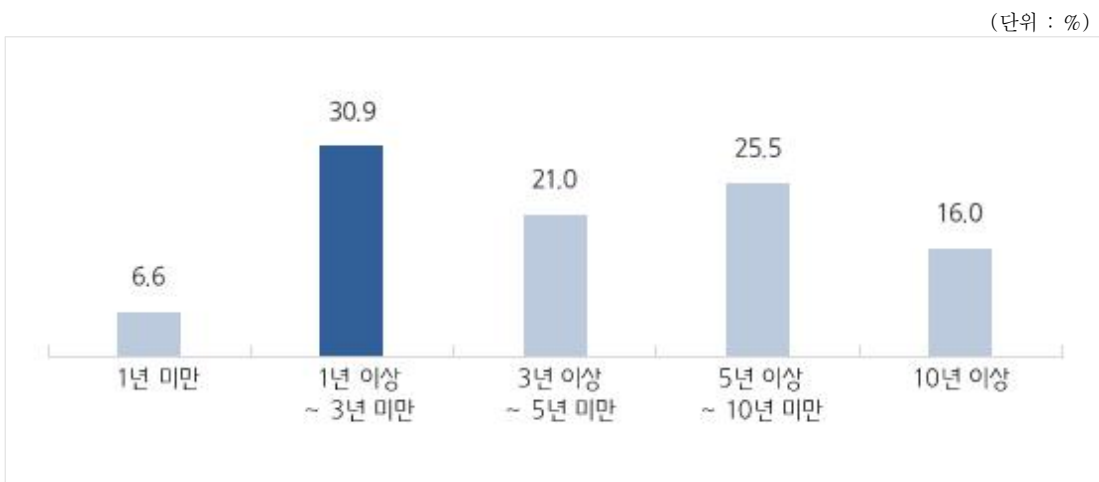
III

## 조사 결과

## 1 폐업 전 영업 영속기간

- 폐업 전 영업 영속기간으로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30.9%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5년 이상~10년 미만’(25.5%), ‘3년 이상~5년 미만’(21.0%) 등의 순임
- 폐업 전 업종별로 영속기간을 살펴보면, 대부분 ‘1년 이상~3년 미만’의 비율이 높게 응답된 반면, ‘제조업’에서는 ‘3년 이상~5년 미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 폐업 전 영업 영속기간



<표 1> 주요변인별 폐업 전 영업 영속기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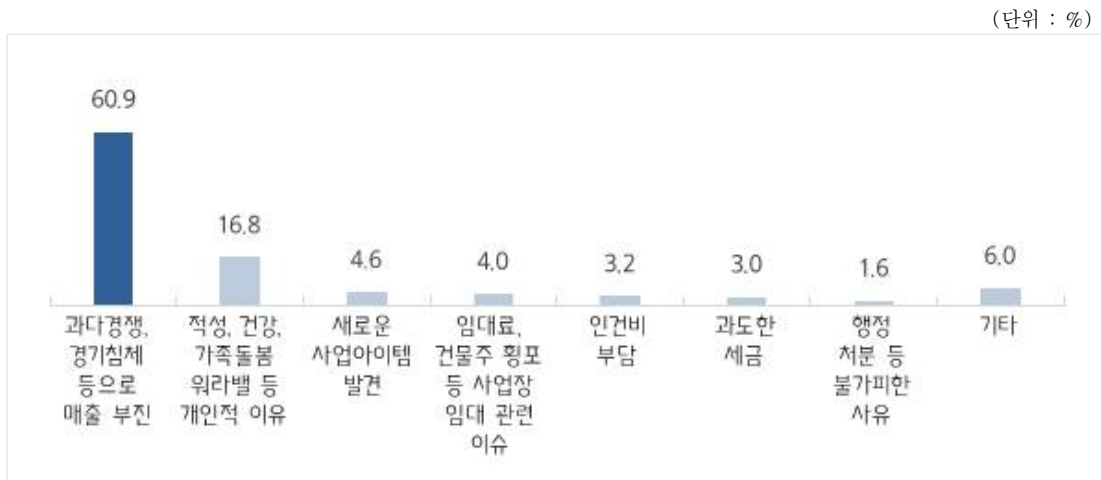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501)	6.6	30.9	21.0	25.5	16.0	
성별	남성	(277)	4.3	30.0	19.5	26.7	19.5
	여성	(224)	9.4	32.1	22.8	24.1	11.6
연령	30대 이하	(96)	12.5	42.7	22.9	19.8	2.1
	40대	(215)	6.0	38.6	23.3	22.8	9.3
	50대 이상	(190)	4.2	16.3	17.4	31.6	30.5
거주지	수도권	(299)	7.0	31.1	18.7	26.1	17.1
	비수도권	(202)	5.9	30.7	24.3	24.8	14.4
폐업 전 업종	제조업	(52)	5.8	23.1	30.8	17.3	23.1
	도·소매업	(114)	7.0	34.2	16.7	22.8	19.3
	숙박및음식점 주점업	(134)	6.7	35.1	23.9	25.4	9.0
	기타 서비스업	(201)	6.5	28.4	18.9	29.4	16.9



## 2 폐업 선택 사유

- 폐업 선택 사유로는 ‘과다경쟁,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 부진’ 응답비율이 60.9%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적성, 건강, 가족돌봄, 워라벨 등 개인적 이유’(16.8%),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견’(4.6%), ‘임대료, 건물주 횡포 등 사업장 임대 관련 이슈’(4.0%), ‘인건비 부담’(3.2%)등의 순임
- 기타 응답으로는, ‘법인 전환’, ‘취업함’, ‘다른 사람에게 양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 등의 응답이 있었음

[그림 2] 폐업 선택 사유



<표 2> 주요변인별 폐업 선택 사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과다 경쟁,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 부진	적성, 건강, 가족 돌봄, 워라벨 등 개인적 이유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견	임대료, 건물주 등 횡포 사업장 임대 관련 이슈	인건비 부담	과도한 세금	행정 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	기타
전체	(501)	60.9	16.8	4.6	4.0	3.2	3.0	1.6	6.0
성별	남성 (277)	62.5	14.4	6.5	4.0	2.5	3.2	1.4	5.4
	여성 (224)	58.9	19.6	2.2	4.0	4.0	2.7	1.8	6.7
연령	30대 이하 (96)	58.3	17.7	5.2	1.0	4.2	3.1	3.1	7.3
	40대 (215)	55.3	20.0	5.1	3.7	3.7	3.7	0.9	7.4
	50대 이상 (190)	68.4	12.6	3.7	5.8	2.1	2.1	1.6	3.7
거주지	수도권 (299)	61.5	18.1	2.7	4.3	3.7	3.7	2.3	3.7
	비수도권 (202)	59.9	14.9	7.4	3.5	2.5	2.0	0.5	9.4
폐업 전 업종	제조업 (52)	65.4	9.6	1.9	3.8	1.9	3.8	3.8	9.6
	도·소매업 (114)	64.0	12.3	2.6	6.1	2.6	2.6	1.8	7.9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 (134)	61.9	14.9	4.5	3.7	8.2	2.2	0.7	3.7
	기타 서비스업 (201)	57.2	22.4	6.5	3.0	0.5	3.5	1.5	5.5

### 3 폐업 시 가장 어려웠던 점

- 폐업 시 가장 어려웠던 점(복수응답)으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 응답 비율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권리금 회수 어려움’(26.9%), ‘매수자 없음’(23.8%), ‘복잡한 폐업 절차(신고 등)’(7.2%), ‘가맹점 위약금 등 부담’(4.4%), ‘기타’(2.8%) 순임
- 폐업 전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의 경우 ‘권리금 회수 어려움’(44.0%)에 대한 응답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3] 폐업 시 가장 어려웠던 점



<표 3> 주요변인별 폐업 시 가장 어려웠던 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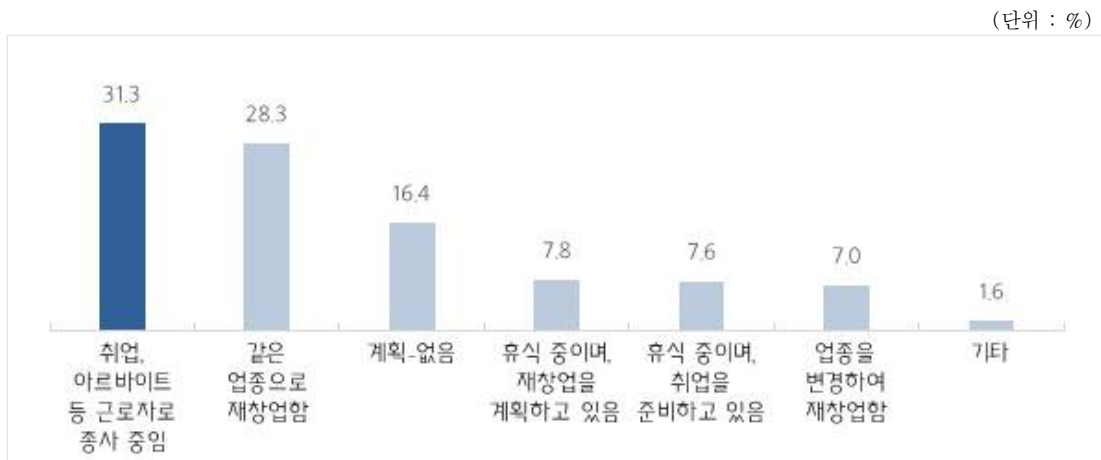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	권리금 회수 어려움	매수자 없음	복잡한 폐업절차 (신고 등)	가맹점 위약금 등 부담	기타	없음	
<b>전체</b>	<b>(501)</b>	<b>50.7</b>	<b>26.9</b>	<b>23.8</b>	<b>7.2</b>	<b>4.4</b>	<b>2.8</b>	<b>18.6</b>	
성별	남성	(277)	55.2	23.8	22.0	8.7	4.3	3.6	16.2
	여성	(224)	45.1	30.8	25.9	5.4	4.5	1.8	21.4
연령	30대 이하	(96)	45.8	26.0	25.0	7.3	4.2	4.2	19.8
	40대	(215)	46.5	26.5	20.0	7.0	4.7	2.8	23.7
	50대 이상	(190)	57.9	27.9	27.4	7.4	4.2	2.1	12.1
거주지	수도권	(299)	48.2	28.1	24.4	6.7	3.7	3.0	20.4
	비수도권	(202)	54.5	25.2	22.8	7.9	5.4	2.5	15.8
폐업 전 업종	제조업	(52)	50.0	19.2	17.3	5.8	5.8	5.8	21.2
	도·소매업	(114)	46.5	21.9	21.9	9.6	7.9	0.0	24.6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	(134)	45.5	44.0	29.9	9.0	3.7	3.0	10.4
	기타 서비스업	(201)	56.7	20.4	22.4	5.0	2.5	3.5	19.9

## 4 폐업 이후 생활

- 폐업 이후 생활로는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중임’ 응답비율이 31.3%로 가장 높게 조사됨
  - 그 다음으로는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함’(28.3%), ‘계획 없음’(16.4%), ‘휴식 중이며,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음’(7.8%), ‘휴식 중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7.6%), ‘업종을 변경하여 재창업함’(7.0%), ‘기타’(1.6%) 순임
- 폐업 이후 생활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41.7%)와 ‘50대 이상’(27.9%)의 경우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중임’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40대’(33.8%)의 경우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함’(28.3%)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음

[그림 4] 폐업 이후 생활



<표 4> 주요변인별 폐업 이후 생활

(단위 : %)

구분	사례수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중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함	계획 없음	휴식 중이며,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음	휴식 중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	업종을 변경하여 재창업함	기타
전체	(501)	31.3	28.3	16.4	7.8	7.6	7.0	1.6
성별	남성 (277)	32.1	30.7	10.8	10.1	6.9	7.6	1.8
	여성 (224)	30.4	25.4	23.2	4.9	8.5	6.3	1.3
연령	30대 이하 (96)	41.7	22.9	13.5	8.3	4.2	7.3	2.1
	40대 (215)	29.8	33.0	14.0	7.4	7.9	6.5	1.4
	50대 이상 (190)	27.9	25.8	20.5	7.9	8.9	7.4	1.6
거주지	수도권 (299)	32.1	26.1	17.1	8.0	8.0	6.7	2.0
	비수도권 (202)	30.2	31.7	15.3	7.4	6.9	7.4	1.0
폐업 전 업종	제조업 (52)	26.9	34.6	13.5	11.5	9.6	3.8	0.0
	도·소매업 (114)	36.8	22.8	13.2	13.2	6.1	7.0	0.9
	숙박·음식점 주업종 (134)	32.1	29.9	14.2	4.5	8.2	9.0	2.2
	기타 서비스업 (201)	28.9	28.9	20.4	6.0	7.5	6.5	2.0

## 5 정부제공 지원책 활용 경험

■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또는 창업지원책 활용률은 11.6%로 조사됨

※ 조사 대상 지원책

<p><b>1) 희망리턴패키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li> <li>-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취업성공패키지 등</li> </ul> <p><b>2) 재창업패키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업종전환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li> <li>- (내용) 재창업교육(민간교육기관, 과정당 60hr 이내), 창업멘토링</li> </ul> <p><b>3) 재도전특별자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li> <li>- (내용) 업체당 1억원,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li> <li>-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결정(직접대출, 매분기 금리공고)</li> </ul>	<p><b>4) 신사업창업사관학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예비창업자(선발)</li> <li>- (내용)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li> </ul> <p><b>5) 소상공인 e러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li> <li>- (내용)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무료 교육</li> <li>- (과정) 창업공통, 실전창업, 실전경영 등 93개 과정</li> </ul>
-----------------------------------------------------------------------------------------------------------------------------------------------------------------------------------------------------------------------------------------------------------------------------------------------------------------------------------------------------------------------------------------------------------------------------------------------------------------------------------------------------------------	---------------------------------------------------------------------------------------------------------------------------------------------------------------------------------------------------------------------------------------------------------------------------------------------------------------------------------------------------------------------------

■ 폐업 전 업종별로는 ‘제조업’(17.3%)의 정부제공 지원책 활용률이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기타 서비스업’(13.4%),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10.4%), ‘도·소매업’(7.0%)순임

[그림 5] 정부제공 지원책 활용 경험



<표 6> 주요변인별 정부제공 지원책 활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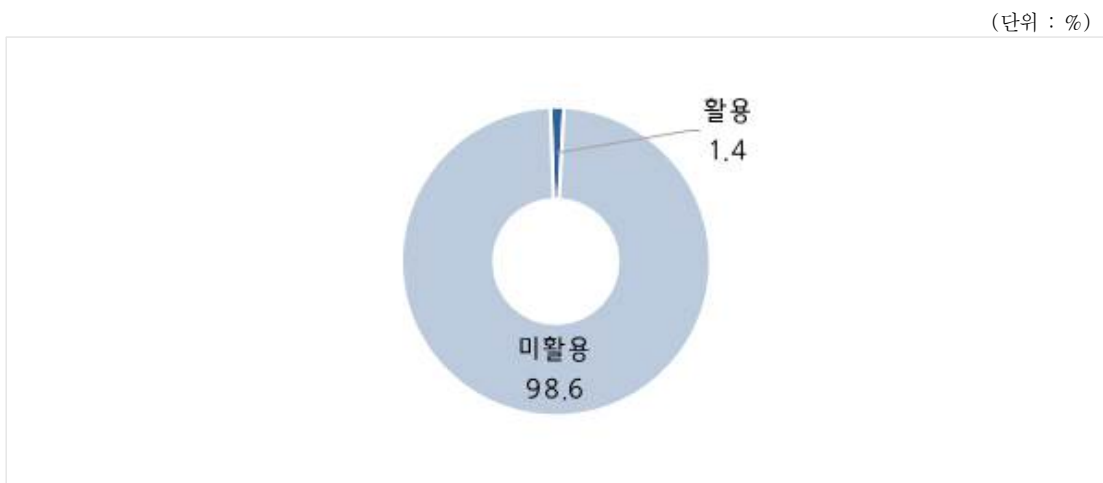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활용	미활용
전체	(501)	11.6	88.4
성별	남성 (277)	10.1	89.9
	여성 (224)	13.4	86.6
연령	30대 이하 (96)	5.2	94.8
	40대 (215)	14.9	85.1
	50대 이상 (190)	11.1	88.9
거주지	수도권 (299)	11.0	89.0
	비수도권 (202)	12.4	87.6
폐업 전 업종	제조업 (52)	17.3	82.7
	도·소매업 (114)	7.0	93.0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 (134)	10.4	89.6
	기타 서비스업 (201)	13.4	86.6

### 5-1 희망리턴패키지 이용 경험

- 희망리턴패키지 활용률은 1.4%로 조사됨
- 폐업 전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2.2%)의 희망리턴패키지 활용률이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1.9%), ‘기타 서비스업’(1.5%)순임

[그림 6] 희망리턴패키지 이용 경험



<표 7> 주요변인별 희망리턴패키지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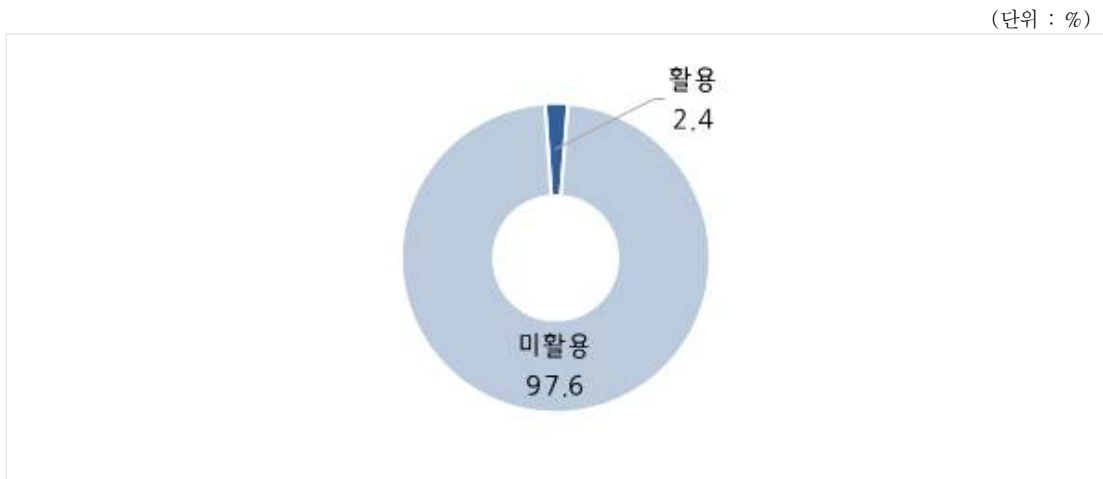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활용	미활용
<b>전체</b>	<b>(501)</b>	<b>1.4</b>	<b>98.6</b>
성별	남성 (277)	1.1	98.9
	여성 (224)	1.8	98.2
연령	30대 이하 (96)	0.0	100.0
	40대 (215)	1.9	98.1
	50대 이상 (190)	1.6	98.4
거주지	수도권 (299)	1.3	98.7
	비수도권 (202)	1.5	98.5
폐업 전 업종	제조업 (52)	1.9	98.1
	도·소매업 (114)	0.0	100.0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 (134)	2.2	97.8
	기타 서비스업 (201)	1.5	98.5

## 5-2 재창업패키지 이용 경험

- 재창업패키지 활용률은 2.4%로 조사됨
- 폐업 전 업종별로는 ‘제조업’(5.8%)의 재창업 패키지 활용률이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기타 서비스업’(2.5%), ‘도·소매업’(1.8%),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1.5%) 순임

[그림 7] 재창업패키지 이용 경험



<표 8> 주요변인별 재창업패키지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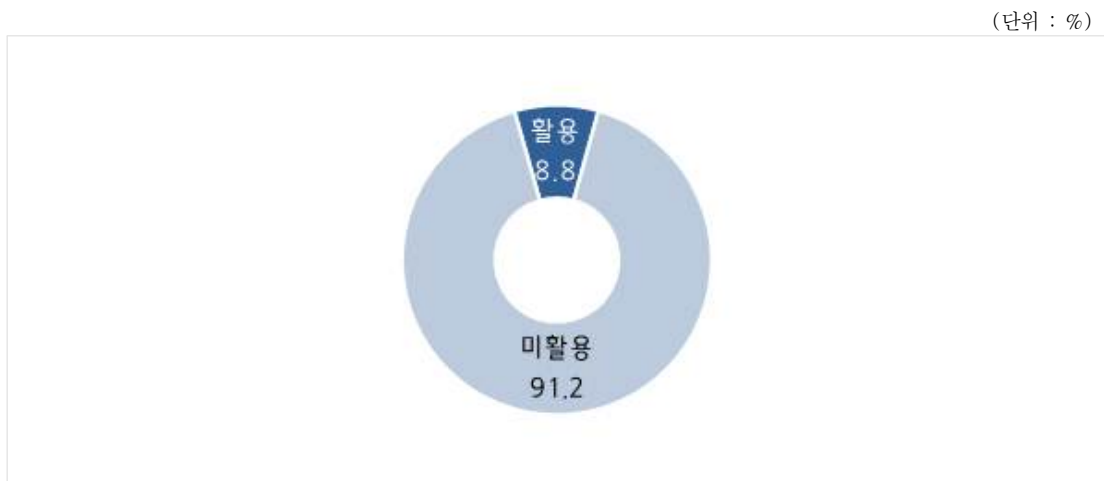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활용	미활용
<b>전체</b>	<b>(501)</b>	<b>2.4</b>	<b>97.6</b>
성별	남성 (277)	2.2	97.8
	여성 (224)	2.7	97.3
연령	30대 이하 (96)	0.0	100.0
	40대 (215)	2.8	97.2
	50대 이상 (190)	3.2	96.8
거주지	수도권 (299)	2.7	97.3
	비수도권 (202)	2.0	98.0
폐업 전 업종	제조업 (52)	5.8	94.2
	도·소매업 (114)	1.8	98.2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 (134)	1.5	98.5
	기타 서비스업 (201)	2.5	97.5

### 5-3 재도전특별자금 이용 경험

- 재도전특별자금 활용률은 8.8%로 조사됨
- 폐업 전 업종별로는 ‘제조업’(13.5%)의 재도전특별자금 활용률이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9.7%), ‘기타 서비스업’(9.5%), ‘도·소매업’(4.4%) 순임

[그림 8] 재도전특별자금 이용 경험



<표 9> 주요변인별 재도전특별자금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활용	미활용
<b>전체</b>	<b>(501)</b>	<b>8.8</b>	<b>91.2</b>
성별	남성 (277)	7.6	92.4
	여성 (224)	10.3	89.7
연령	30대 이하 (96)	4.2	95.8
	40대 (215)	10.2	89.8
	50대 이상 (190)	9.5	90.5
거주지	수도권 (299)	8.0	92.0
	비수도권 (202)	9.9	90.1
폐업 전 업종	제조업 (52)	13.5	86.5
	도·소매업 (114)	4.4	95.6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 (134)	9.7	90.3
	기타 서비스업 (201)	9.5	90.5

### 5-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용 경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활용률은 2.0%로 조사됨
- 폐업 전 업종별로는 ‘제조업’(3.8%)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활용률이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기타 서비스업’(2.5%),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1.5%), ‘도·소매업’(0.9%) 순임

[그림 9]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용 경험



<표 10> 주요변인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활용	미활용
<b>전체</b>	<b>(501)</b>	<b>2.0</b>	<b>98.0</b>
성별	남성 (277)	1.4	98.6
	여성 (224)	2.7	97.3
연령	30대 이하 (96)	0.0	100.0
	40대 (215)	3.7	96.3
	50대 이상 (190)	1.1	98.9
거주지	수도권 (299)	2.0	98.0
	비수도권 (202)	2.0	98.0
폐업 전 업종	제조업 (52)	3.8	96.2
	도·소매업 (114)	0.9	99.1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 (134)	1.5	98.5
	기타 서비스업 (201)	2.5	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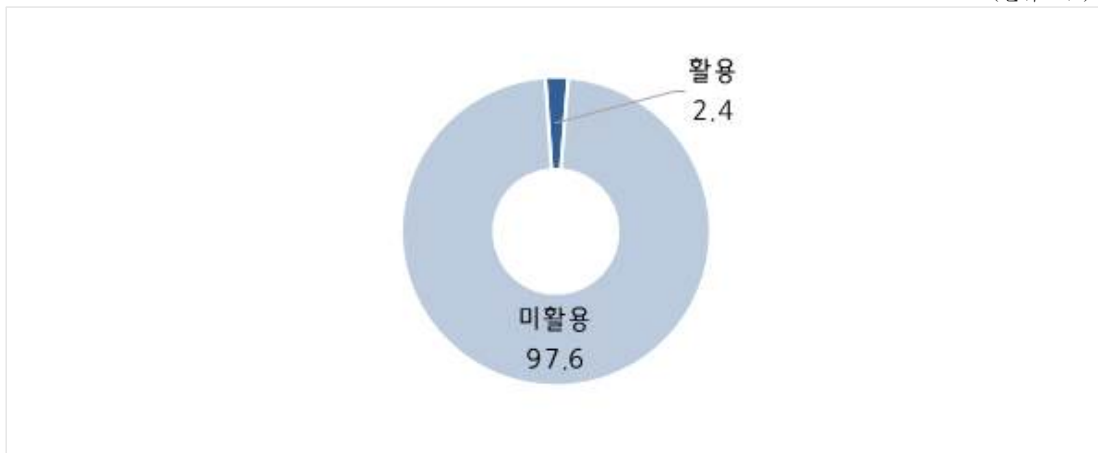


### 5-5 소상공인 e러닝 이용 경험

- 소상공인 e러닝 활용률은 2.4%로 조사됨
- 폐업 전 업종별로는 ‘제조업’(5.8%)의 소상공인 e러닝 활용률이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업’(2.6%), ‘기타 서비스업’(2.5%),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0.7%) 순임

[그림 10] 소상공인 e러닝 이용 경험

(단위 : %)



<표 11> 주요변인별 소상공인 e러닝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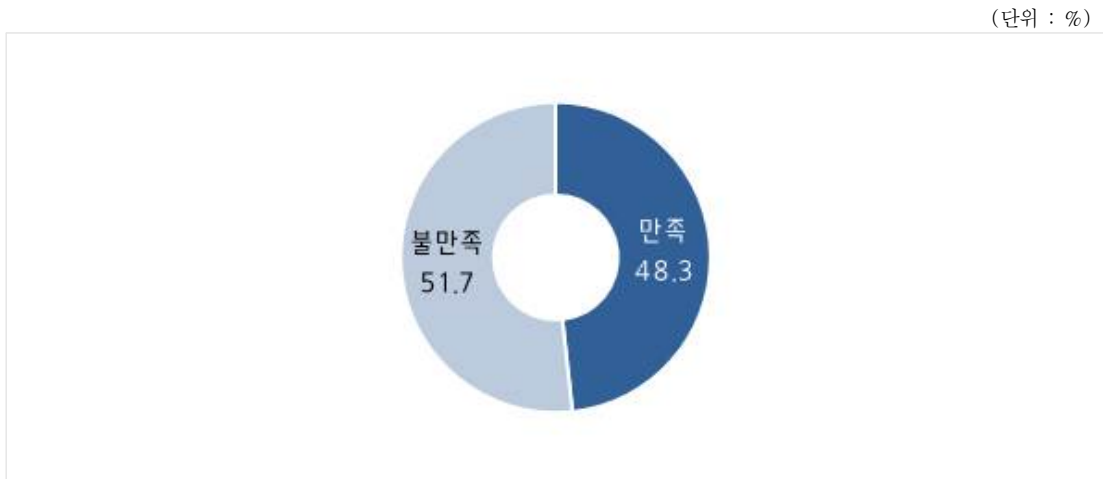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활용	미활용
<b>전체</b>	<b>(501)</b>	<b>2.4</b>	<b>97.6</b>
성별	남성 (277)	1.4	98.6
	여성 (224)	3.6	96.4
연령	30대 이하 (96)	1.0	99.0
	40대 (215)	3.7	96.3
	50대 이상 (190)	1.6	98.4
거주지	수도권 (299)	2.7	97.3
	비수도권 (202)	2.0	98.0
폐업 전 업종	제조업 (52)	5.8	94.2
	도·소매업 (114)	2.6	97.4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 (134)	0.7	99.3
	기타 서비스업 (201)	2.5	97.5

## 6 활용 지원책 만족도

- 활용경험이 있는 경우 활용한 지원책에 대한 만족률은 48.3%로 조사됨
- 폐업 전 업종별로는 ‘도·소매업’(75.0%)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64.3%), ‘기타 서비스업’(40.7%), ‘제조업’(22.0%)순임

[그림 11] 활용 지원책 만족도



<표 12> 주요변인별 활용 지원책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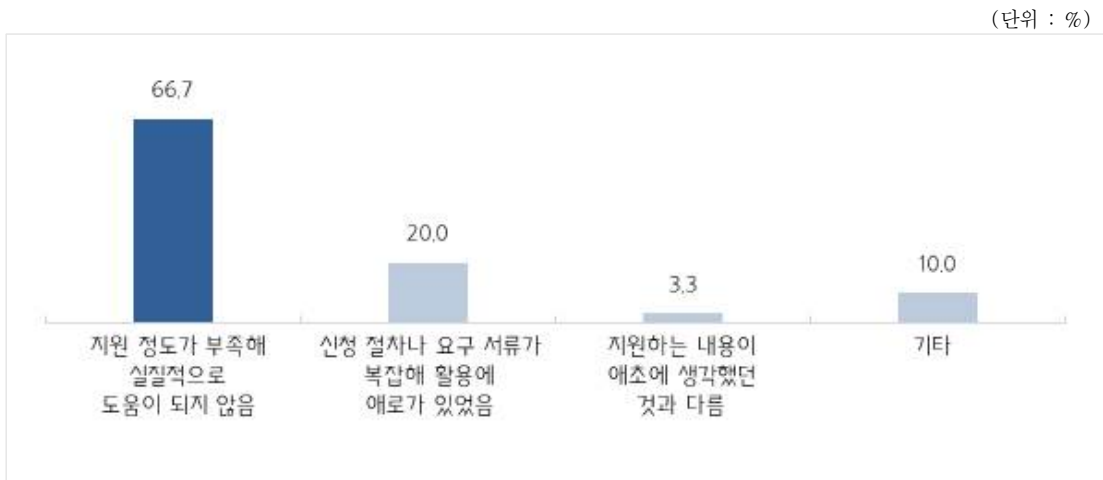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만족	불만족
<b>전체</b>	<b>(58)</b>	<b>48.3</b>	<b>51.7</b>
성별	남성 (28)	39.3	60.7
	여성 (30)	56.7	43.3
연령	30대 이하 (5)	60.0	40.0
	40대 (32)	53.1	46.9
	50대 이상 (21)	38.1	61.9
거주지	수도권 (33)	42.4	57.6
	비수도권 (25)	56.0	44.0
폐업 전 업종	제조업 (9)	22.2	77.8
	도·소매업 (8)	75.0	25.0
	숙박및음식점 주점업 (14)	64.3	35.7
	기타 서비스업 (27)	40.7	59.3

base) 정부제공 지원책 활용 경험 있는 응답자

## 6-1 지원책 활용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 지원책 활용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 정도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 응답비율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신청 절차나 요구 서류가 복잡해 활용에 애로가 있었음’(20.0%), ‘지원하는 내용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름’(3.3%), ‘기타’(10.0%)순임
- 기타 응답으로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도 규제 완화 필요’ 등이 있었음

[그림 12] 지원책 활용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표 13> 주요변인별 지원책 활용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지원 정도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	신청 절차나 요구 서류가 복잡해 활용에 애로가 있었음	지원하는 내용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름	기타	
전체	(30)	66.7	20.0	3.3	10.0	
성별	남성	(17)	70.6	17.6	0.0	11.8
	여성	(13)	61.5	23.1	7.7	7.7
연령	30대 이하	(2)	50.0	0.0	0.0	50.0
	40대	(15)	66.7	26.7	6.7	0.0
	50대 이상	(13)	69.2	15.4	0.0	15.4
거주지	수도권	(19)	63.2	15.8	5.3	15.8
	비수도권	(11)	72.7	27.3	0.0	0.0
폐업 전 업종	제조업	(7)	71.4	28.6	0.0	0.0
	도·소매업	(2)	100.0	0.0	0.0	0.0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	(5)	60.0	0.0	0.0	40.0
	기타 서비스업	(16)	62.5	25.0	6.3	6.3

base) 정부제공 지원책 활용에 대해 불만족 응답자

## 7 지원책 활용하지 않은 이유

- 지원책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응답 비율이 72.7%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지원하는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음’(9.9%), ‘신청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움’(8.6%), ‘지원책은 필요없음’(5.0%), ‘기타’(3.8%) 순임

[그림 13]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표 14> 주요변인별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지원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음	신청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움	지원책은 필요없음	기타	
<b>전체</b>	<b>(443)</b>	<b>72.7</b>	<b>9.9</b>	<b>8.6</b>	<b>5.0</b>	<b>3.8</b>	
성별	남성	(249)	72.7	10.8	10.8	3.6	2.0
	여성	(194)	72.7	8.8	5.7	6.7	6.2
연령	30대 이하	(91)	73.6	3.3	7.7	11.0	4.4
	40대	(183)	69.4	11.5	9.8	4.4	4.9
	50대 이상	(169)	75.7	11.8	7.7	2.4	2.4
거주지	수도권	(266)	70.7	10.2	9.8	4.9	4.5
	비수도권	(177)	75.7	9.6	6.8	5.1	2.8
폐업 전 업종	제조업	(43)	67.4	11.6	11.6	7.0	2.3
	도·소매업	(106)	72.6	9.4	9.4	4.7	3.8
	숙박 및 음식점 주점업	(120)	70.8	11.7	9.2	5.0	3.3
	기타 서비스업	(174)	75.3	8.6	6.9	4.6	4.6

base) 정부제공 지원책 미활용 응답자

## 8 | 재창업을 준비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 재창업을 준비한다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자금지원’의 응답비율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지원정책 홍보’(6.2%), ‘현실적 정책 지원’(5.5%), ‘정책 개선’(5.3%) 등의 순임

<표 15> 재창업을 준비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단위 : %)

구분	세부내용
<b>자금지원 필요</b> (212명, 66.0%)	- 사업 자금 지원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고, 각종 세금 인하 요망 - 장기 저금리로 창업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 세금 인하
<b>지원정책 홍보</b> (20명, 6.2%)	-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함 - 교육제도 홍보 및 성공사례 발표 - 정부지원책에 대해 공중파 등에서 홍보 요망
<b>현실적 정책 지원</b> (18명, 5.6%)	- 현실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 - 1년 이상 매출을 보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계획과 전망을 보고 지원 요망)
<b>정책 개선</b> (17명, 5.3%)	- 혜택 보다 규제 사항을 확인 후, 제재 완화 요망 - 규제 완화 필요
<b>인건비 문제 지원</b> (14명, 4.4%)	- 직원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 지속이 어려움 -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인건비를 자율 경제시장에 맡겨야 함
<b>경제 활성화 필요</b> (14명, 4.4%)	-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창업을 할 수 있음 - 경기 침체되어 활성화 필요
<b>교육 및 정보 제공</b> (7명, 2.2%)	- 재창업 시 업종선택에 유리한 통계자료 제공 요망 - 재창업 시 재교육을 실전 창업, 실전 경영 등으로 지원해 줘야함 - 재기 교육 후 취업 알선 요망
<b>창업 절차 간소화</b> (7명, 2.2%)	- 지원절차 복잡함에 따라 간소화 필요함 - 창업자금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힘들어 포기했음 - 현실에 맞게 신청방법이나 요건이 복잡하지 않았으면 함
<b>기타</b> (12명, 3.7%)	- 대기업의 독식이 너무 심함 - 공간 제공 - 입지에 대한 상권분석 지원

## 9 | 취업을 준비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 취업을 준비한다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금지원’(18.4%), ‘취업 관련 정보 제공’(16.1%), ‘교육 제공’(16.1%), ‘맞춤, 현실적 지원’(6.9%), ‘기타’(4.6%) 순으로 조사됨

〈표 16〉 취업을 준비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단위 : %)

구분	세부내용
<b>일자리 창출</b> (33명, 37.9%)	- 나이가 많아 취업이 되지 않음. 제대로 된 고령자 일자리 창출 요망 -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개설 요망 - 재취업 시 연령에 대한 제한이 풀어졌으면 함
<b>자금 지원</b> (16명, 18.4%)	- 직장인과 같이 실업급여 같은 재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적 지원제도 필요 - 폐업 후 재기 할 때까지의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 지원책 필요
<b>취업 관련 정보 제공</b> (14명, 16.1%)	-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취업 정보 제공 - 전문분야를 살릴 수 있는 정보 제공 필요
<b>교육 제공</b> (14명, 16.1%)	- 재취업을 위한 교육 필요 - 재기를 위한 자격증 교육 요망 - 취업 시 업종에 따른 추가 교육 및 축하금 등 지원 필요
<b>맞춤, 현실적 지원</b> (6명, 6.9%)	-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할 필요 있음
<b>기타</b> (4명, 4.6%)	- 고학력자 우선보다 기술 위주로 우대하는 제도 개선책 필요 - 소기업의 조건이 대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도록 개선 필요

10 기타 자유의견

<표 17> 기타 의견

(단위 : %)

구분	세부내용
<b>자금 지원</b> (136명, 43.3%)	- 창업 및 사업자금 저리로 장기간 지원 요망 - 세금 대폭 인하 필요 - 철저한 검증을 통한 대출 지원
<b>제도 개선</b> (100명, 31.8%)	- 창업 절차나 지원책에 대한 절차 간소화 요망 - 직원 고용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불리한 제도로 되어 있음. 자율적인 임금협의 요망 - 인건비 상승의 부담. 인건비 자율 및 주휴수당 재검토 필요
<b>경제 활성화 필요</b> (40명, 12.7%)	- 경기가 나빠져 폐업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취업도 되지 않음. 경제 활성화 시급 - 경기 부양을 위한 자율 시장 경제 필요
<b>교육 및 홍보 필요</b> (17명, 5.4%)	- 소상공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 지원 - 업종별 균형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 정부지원 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홍보 필요 - 창업에 대한 통계 제공 요망
<b>일자리 확충</b> (4명, 1.3%)	- 퇴직 노년자들은 재취업이 어려움. 노년자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요망 - 자금지원 보다는 일자리 확충 요망
<b>기타</b> (17명, 5.4%)	- 업종별 거리간격을 두고 허가 요망 - 1인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 폐업 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혜택이 없음